

올 전북형 늘봄학교 새학기 본격 추진

초3 방과후 이용권 도입... 전북교육청, 학교·지역 함께하는 운동내 돌봄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모든 아이가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2026. 전북형 늘봄학교를 3월 새학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북형 늘봄학교는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와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연계한 통합 돌봄·교육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먼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차시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 놀이·체험·기초학습·정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해 방과 후에도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간 50만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이용권은 학교 안 선택형(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교재·재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늘봄학교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학교 안 돌봄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밖 돌봄은 보다 내실화한다.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시설 등 20개 학교 밖 늘봄기관과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주·군산·고창 등에서는 '운동내 돌봄·교육센터(舊 거점늘봄센터)'를 운영해 지역 단위 공동 대응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지자체·지역기관이 함께하는

늘봄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학교 늘봄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 개별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별 여건 차이로 발생하는 돌봄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 안전도 한층 강화한다. 초등

1~2학년을 중심으로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고, 늘봄지킴이 인력을 확대해 귀가 안전을 보장한다. 아울러 전북경찰청과 협력한 탄력 순찰제 운영으로 학교 밖 이동 안전도 함께 확보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감사에 대한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명확화, 감사

결격사유 신설, 만족도 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늘봄학교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전북형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복지 통합 모델"이라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늘봄 환경을 만들어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는 전북형 교육정책으로 정착시켜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모든 아이가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2026. 전북형 늘봄학교'를 3월 새학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고창남초등학교 늘봄.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대학청년고용서비스 성과평가 '우수'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안정성·성과 동시 입증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2025년 대학청년고용서비스 사업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기준 5년 연속,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기간까지 포함하면 7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하며 청년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안정성과 성과를 동시에 입증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청년 고용서비스의 질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취업지원 체계 구축 △대학생·졸업생 맞춤형 서비스 △지역 연계 성과 △사업 운영의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모든 평가 영역에서 고른 성과를 보이며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전주대학교는 재학생부터 졸업생, 지역 청년까지 아우르는 단계별·맞춤형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진로 설계, 취업 역량 강화, 현장 연계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훈 기자



또한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청년 고용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취업지원 모델을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우수 사례로 꼽힌다.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학생취업처장) 오현성 교수는 "7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 사업 기간 전반에 걸친 최고등급 유지는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중심 운영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취업지원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 고용정책의 현장 거점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건축사 양성체계 재구축

5년제 '건축학' 운영 재개, 2027학년도부터 교육과정 운영키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건축사 양성 체계를 다시 구축하며, 전문 건축인재 배출의 산실로 거듭나게 됐다.

전북대는 최근 학과 정원 조정안을 확정하고 현행 건축공학과 정원을 조정해 5년제 '건축학'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공학과(4년제) 중심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건축학부 체제로 전환해 건축공학과(4년제)와 건축학(5년제) 전공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전북대 건축 분야 학과는 과거 건축공학과(4년제)와 건축학과(3년제)로 운영됐으나, 2010년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로 통합되면서 3년제 과정이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전북대는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 부재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

현행 제도상 건축사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5년제 건축학과 졸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전북대는 해당 과정이 없어 학생들이 학내에서 건축사 자격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해 지역 건축 전문 인력 양성과 연계된 교육 기반 약화로 이어



졌다.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정원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축공학과 정원 50명을 건축공학 전공 35명, 건축학 전공 15명으로 나누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 전공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도 매우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는 관련 학사 운영 준비를 거쳐 2027학년도부터 5년제 건축학과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정원 조정은 건축사 자격 체계와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해 학생들이 학내에서 안정적으로 전문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무형 건축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학생 주도 탐구 역량·교사 수업 실행력 강화

전북교육청, 2026 과학교육 기본계획 수립 지능형 과학실 100개 학교 구축 등 포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 학교 현장 중심의 과학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탐구하는 즐거움 미래에 도전하는 힘을 키우는 과학교육을 목표로 2026년 전북 과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주도 탐구 역량과 교사의 수업 실행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미래형 과학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형 과학실을 초·중·고 100개교에 구축하고, 학교당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능형 과학실은 디지털 실험 도구와 데이터 기반 탐구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고 문

제를 해결하는 과학 수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나사(NASA) 글로벌 캠프는 기존 중학교 1학년 대상에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이동 중심의 일정과 고강도 체험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의 신체·정서적 발달 수준과 학습 경험에 보다 적합한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캠프 일정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며, 우주·과학 탐구 활동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융합교육(STEAM)은 그동안 기반 구축 단계에서 올해는 수업과 교육과정에 실제로 안착하는 '내실화' 단계로 전환한다.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행가능한 STEAM 동아리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STEAM 콘퍼런스'를 신규로 개최해 학교별 융합교육 운영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 간 협력과 정책 환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2026년은 과학교육과 융합교육이 정책 차원에서 과학교육과 융합교육이 정책 차원에서 함께 체감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학생 주도 탐구와 교사의 전문성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학생교육문화관 전자잡지 서비스 도입

군산학생교육문화관(관장 홍곡숙)은 올해부터 전자잡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변화하는 독서 환경과 디지털 시대 흐름에 발맞춘 온라인 정기간행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잡지 서비스는 시사·경제·문화·라이프스타일·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자잡지를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기반이다.

이 서비스는 군산학생교육문화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속은 물론 도서관 방문 이용도 가능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전자잡지 서비스 도입은 종이 잡지 중심의 기존 정기간행물 이용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의 이용 행태를 반영한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콘텐츠를 통해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빠르게 접할 수 있어 자기주도적 학습과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문화관은 전자잡지 서비스와 영상 콘텐츠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주간과 독서의 달 등 주요 독서문화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독서 활동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홍보를 병행하며 전자잡지와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홍곡숙 관장은 "전자잡지 서비스 도입은 단순한 매체 변화가 아니라 교육과 독서 문화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우리 회원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독서·학습 서비스를 통해 미래형 교육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 추진 기반 구축

우석대, 시분야 부트캠프 사업 참여 협약식 개최



지난 20일 우석대학교 시혁신추진위원회는 전주캠퍼스 문화관 5층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시 분야) 사업 참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도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 20일 우석대학교 시혁신추진위원회는 전주캠퍼스 문화관 5층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시 분야) 사업 참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학과 참여기업 간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현장 연계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운태 대외협력부총장과 이종석 부트캠프 위원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전북SW산업협회장인 전석기(주)아티스테이션 대표, 최태웅(주)아이트론 대표, 김영은(주)종은정보기술 대표 박남주(주)쉴러 대표, 진병춘클래운 전무 등 참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사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이 소개됐으며, 참여기업들은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과 실무

형 교육 고도화, 현장실습·인턴십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AI·SW 기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김운태 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대학과 참여기업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이번 자리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참여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트캠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우석대학교 AI 인재를 협력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석기(주)아티스테이션 대표는 참여기업에 대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AI·SW 기반 첨단산업 인재 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참여기업과 함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산업 연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원주=염태복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는 21일 법무법인 YK와 학생 권익 보호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학생 권익 보호 체계 마련 '손맞잡아'

국립군산대 인권센터, 법무법인 YK와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는 21일 법무법인 YK와 학생 권익 보호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군산대학교 권익실 인권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법률적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인권을 존중받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통해 인권센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YK 군산분사무소장 이선우 변호사는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군산대학교 권익실 인권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법률적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인권을 존중받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